

한국 여성들의 사회 규범적 행위 양식에 대한 조망: 집단 고양 편향과 겸손 행위에 대한 분석

최상진 · 김시엽* · 김은미 · 김기범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경기대학교 교양·교직학부*

본 연구는 한국 문화에서 여대생들이 사회적으로 규범화된 행위 양식인 집단고양 편향(group-serving 또는 group-enhancing bias) 현상과 겸손 행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되었다. 서구 문화권에서는 자신의 성공을 내적인 귀인(노력이나 실력)으로, 실패를 외적 귀인(운, 과제난이도)으로 하는 현상을 자기 이기적 편향(self-serving bias)이라 하는데, 일본 문화권에서는 이러한 서구의 사회심리 현상을 자신보다는 집단이 우선한다는 집단고양적 편향(group-serving 또는 group-enhancing bias)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한국 문화에서는 자신의 성공을 외적인 요인에 귀인하고, 자신의 실패를 내적인 요인에 귀인할 때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예의바르며 사회적으로 가치로운 사람이라고 구성원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사회적으로 규범화된 행위 양식 즉 겸손언행을 여대생들도 대인관계 측면에서나 사회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내집단의 수행결과가 성공적일 때 집단성원들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실패했을 때에는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때문으로 귀인할 때 겸손한 것으로 평가하였고, 또한 그러한 사람을 자신의 친구나 집단성원으로, 그리고 사회구성원으로 바람직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예의 바른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그러한 겸손한 표현 방식은 솔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행위의 결과에 대한 원인을 추론하는 귀인현상 그 자체는 어느 문화에서나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귀인 양식이 인종간, 계층간(Battle & Rotter,

1963), 문화간(Choi, Nisbett & Norenzayan, 1999; Krull, Loy, Lin & Wang, 1999; Matsumoto, 1996, pp. 165-169; Kashima & Triandis, 1986; Semin & Zwier, 1997, pp.

55-57)에 명백한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연구들이 많다. 귀인 양상은 생동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화 과정에서 습득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다양한 생활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귀인은 상당히 다르리라 생각할 수 있다. 사람들은 개인적 경험뿐 아니라 문화적 영향에 의해 타인의 행동을 판단할 때 적용하는 귀인 관련 인지 목록들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Heider(1958)와 Kelley(1967)에 의해 대표되는 전통적 귀인이론에 의한 귀인 양상은 개인주의 문화의 귀인양상을 분석하는데 적절하며, 문화가 다른 사회성원들의 귀인에는 적용이 안 될 수 있다.

서구 문화권에서는 자신의 행동 수행 결과에 대한 원인을 추론할 때 내적인 측면(노력, 능력)이나 외적인 측면(운, 과제난이도)에 귀인한다(Franzoi, 1996, pp. 106-108). 또한 학업 성취나 일의 수행 결과에 대하여 성공하였을 때에는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에 귀인하고, 반면에 패했을 때에는 이를 운이나 과제 난이도에 귀인하는 것이 보편적인데 이를 이기적 편향(self-serving bias)이라고 한다(한규석, 1995, pp. 113-114; Franzoi, 1996, pp. 115-117). 이러한 현상은 서구인들의 개인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기적 편향은 성공에 대한 공로를 행위자에게 그리고 실패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는 경향성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이것은 비교적 잘 확립된 현상이다(Zuckerman, 1979; Nisbett & Ross, 1980).

이러한 이기적 편향에 대한 문화간 비교 연구를 보면, Chandler, Shama, Wolf와 Planchard(1981)은 인디언, 일본인, 남아프리카인, 미국인, 유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일본인 집단을 제외하고는 모든 문화권에서 이기적 편향이 나타났음을 발견했다. 반대로 Watkins와 Regmi(1990)는 네팔에서는 그러한 이기적 편향이 발견되지 않았고, Fry 와 Ghosh(1980)는 캐나다에서 백인과 인도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백인 아동은 이기적 편향을 보이지만, 아시아계 아동은 이기적 편향의 반대 현상이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의 성공은 행운으로, 실패에 대하여는 개인의 능력(무능력)으로 귀인하였다.

한국 문화를 비롯한 동양 문화권에서는 서구 문화

권과는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데, Markus와 Kitayama(1991)는 아시아 문화권에서의 많은 연구 통해 집단주의 문화권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이기적 편향의 반대 현상을 겸양 편향이라고 설명했다. Kashima와 Triandis(1986)는 일본인과 미국인들에게서 자신들이 성공한 것과 실패한 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기술하게 하여 분류한 결과, 능력, 노력, 과제의 특성, 운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고, 미국인들은 성공한 경우 실패한 경우보다 이를 능력 탓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인들에게는 그 반대로 나타났다.

또한, Yamaguchi(1988)도 일본 학생들에게서 그러한 증거를 발견했다. 그는 일본인은 자기 성공에 대해서는 운, 실패에 대해서는 능력과 노력 부족에 귀인하는 겸양 편향을 보이지만, 경쟁상대의 성공에 대해서는 능력과 노력에 귀인하고(타인고양편향, other-enhancing bias), 실패에 대해서는 운에 귀인하는(타인보호편향 other-protection bias) 타인증진편향(other-serving bias)이 나타났음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같은 집단주의 문화권인 중국인에게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Bond, Hewston, Wan & Chui, 1985). 이 편향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가깝게 여기고 있는 집단의 성패에 대해서도 나타난다(Lau & Russell, 1980; Taylor & Doria, 1981). 예를 들어, 자신이 속한 팀이 스포츠 경기에서 승리했을 때 패배했을 때보다 더욱 내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귀인하였다. 이를 집단 분위적 편향 또는 집단 고양 귀인이라 한다. 이러한 집단고양 귀인은 내집단(즉, 같은 종족) 성원들의 긍정적 행동에 대해 내적 귀인을 하는 반면, 외집단 성원의 행동에 대해서는 그러한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형태로도 나타난다(Hewstone & Jaspars, 1982).

집단 고양 편향은 내집단의 성공과 외집단의 실패에 대해서 내적 귀인을 하는 경향성을 말하고, 내집단의 실패와 외집단의 성공에 대해서는 외적 귀인을 하는 경향성이다. 몇몇 연구들(Miller & Schlenker, 1985; Wolosin, Sherman & Till, 1973)에서는 집단 수행의 결과에 대해 얼마나 자기 자신의 공헌(혹은 잘못)으로 귀인하는가를 비교하였다. 결과는 일관되지 않게 나타났으나, 응집력이 비교적 강하지 않은 집단에

서는 집단의 성공을 동료의 공헌으로보다는 자신의 공헌으로 귀인하는 한편, 실패에 대해서는 동료의 책임에 비해 자신의 책임이 적은 것으로 귀인하였다.

집단 수행에 대한 이와 같은 이기적 귀인은 그러나 자신의 귀인에 대해 동료가 알게 되는 공개적 귀인 상황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Müller & Schlenker, 1985). 이러한 결과는 아마도 공개적 상황에서 팀 동료가 듣고 있을 때 팀의 성공을 자신의 공헌으로 돌리는 것은 부정적 평가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일 것으로 연구자들은 해석하였다. 또한 스포츠 팀과 같이 응집력이 강한 실제 집단에서는 자기고양귀인보다는 집단(혹은 동료)지향적 귀인이 나타났다(Taylor & Doria, 1981).

Bond, Hewstone, Wan과 Chui(1985)는 중국에서 피험자들의 익명성이 집단고양 편향의 출현과 비출현의 중심 역할이라고 하였다. 중국 피험자들은 성특성을 설명하는데 있어 집단 고양 편향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청중이 없는 조건에서만 분명하였다. 청중이 있는 조건에서는 중국인들은 집단고양편향의 반대현상이 나타났다. 초기 미국인들의 증거와 일관되게, Bond와 동료들의 미국 피험자들은 청중의 존재와 부재 둘 다에서 집단고양 편향이 나타났다. Wan과 Bond(1982)는 이기적/겸양적 편향과 관련지어 이들 결과를 모사하였다. 중국 피험자들이 성공실패의 귀인을 익명적인 응답자에 할 경우 미국인들과 비슷하게 이기적 편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실험자에게 귀인이 알려지는 비익명 조건하에서는 겸양적 편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겸양적 귀인은 표현뿐이고 내면의 귀인은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렇게 집단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수행 결과에 대한 귀인을 할 때는 겸양 편향이 나타나고, 타인의 수행 결과에 대한 귀인을 할 때는 타인증진편향이 나타난다는 결과들은, 그러한 문화권에서 타인과의 조화와 배려, 양보 등 관계지향적 행동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함을 잘 드러내 준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의 능력을 성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는 서구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기적 편향이 상당히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개인 수행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집단 작업에 대

해서도 자기 자신의 공헌을 높이려는 방향으로 귀인하는 것이 보다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일본과 같은 집단주의적 문화권에서는 자기고양보다는 겸양 귀인이 보다 우세하게 나타나(Shikanai, 1978; Markus & Kitayama, 1991에서 재인용), 일본의 대학생들은 성공은 과제가 쉬었기 때문이고 실패는 노력부족으로 귀인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관계지향적 사회에서는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권에서와는 달리, 남보다 뛰어난 능력으로 인해 자존심이 높아지기보다는, 다른 사람과의 조화로운 관계와 타인의 인정과 이를 얻기 위한 자기통제 능력이 자존심의 근원이 되므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되었다(Markus & Kitayama, 1991).

동양권에서 겸양적 귀인이 나오는 것은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을 겸손하고, 자만하지 않는 사람으로 인식시켜 대인관계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겸손 행위는 상대방(들)을 배려하고 자신이 예의 바르고 인격이 성숙한 사람임을 암시하는 기능적 측면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이다.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적 욕구나 목표의 추구는 집단 내에 갈등을 야기하고 조화를 해치는 원인이 된다고 본다. 따라서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사회관계에서 자기억제를 강조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겸양과 조화 및 양보와 협동을 중시하게 된다(최상진, 김기범, 1999). 한국을 포함한 관계문화권에서 개인적 수행에 대해 겸양성 귀인이 나타나는 현상은 개인의 특출한 능력의 표출과 이를 내귀인시키는 것이 남들로부터 경원감을 사며, “모난 돌 정 한 번 더 맞는 다”는 속담격으로 되기 쉽다는 믿음에 기인하는 것 같다. 이러한 추론은 집단주의 문화권의 사람들이 겸양편향적 귀인을 하는 사람을 자기고양편향적 귀인을 하는 사람보다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에서 입증된다.

Yoshida, Kojo와 Kaku(1982; Markus & Kitayama, 1991)는 일본의 학생들이 겸양편향적 귀인을 하는 동료들을 자기고양편향적 귀인을 하는 동료들보다 성격 특성도 더 좋고, 또 능력도 더 뛰어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힘으로써, 겸양의 특성이 조화를 추구하는 집단주의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것

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에서 Shikanai(1978)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험 과제를 수행시키고 성공/실패를 조작한 후 피험자들이 보이는 귀인양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실패는 노력의 부족으로, 성공은 과제의 용이한 탓으로 여기는 겸양적 귀인이 나타났다. 한편, 김혜숙(1995)은 집단고양 귀인과 동료지향적 귀인 경향은 '겸양의 미덕'이나 '타인의 기분과 원망을 고려할 줄 알아야 된다'는 등의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압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구의 'self-serving bias'가 그 문화권의 self에 대한 규정과 표현 방식에서 비롯되었다는 전제하에 한국 문화에서는 그러한 이기적 편향보다는 집단을 고양(group-serving or enhancing)하거나 자신을 낮추는(self-effacing) 겸양편향 현상이 사회적으로 규범화된 행위이며, 그러한 행위의 이면에는 '자신의 탁월함과 우수성 및 인간 됨됨이'를 승인받는 표현 방식으로 가정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적절한 자기제시와 집단으로부터의 승인은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며, 자기를 낮추는 사회 규범에 따라 행동하도록 강하게 동기화 된다(Leong & Ward, 1999). 그렇게 행함으로써 자신이 더욱 성숙되고 능력있는 사람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기능적 측면을 또한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귀인에 있어서의 성차에 관한 연구(류운상, 최현주, 정진경, 1994)는 귀인소재가 남성적 소재이므로, 만약 여성적인 것이라면, 그 반대로 나올 수도 있음을 가정하고 있는데, 성공에 대해 남성은 능력 귀인을 함으로써 수행을 과대평가하고, 반면에 여성은 능력 귀인을 하지 않고 과제난이도, 노력 혹은 운의 불안정한 요인으로 귀인을 한다(Frieze, 197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집단수행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결과가 성공했을 경우와 실패했을 때 이를 공격 상황에서 표현하는 상황을 설정하여 그러한 표현행위의 규범적 가치를 겸손의 정도와 사회적 가치 및 인간적 가치의 수준으로 나누어 여대생들의 사회 규범화된 가치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려 한다.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설정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1. 성공을 외적으로 귀인하는 것이 더 겸손하게 평

가될 것이다.

2. 실패를 내적으로 귀인하는 것이 더 겸손하게 평가될 것이다.

3. 귀인 언행에 대한 평가는 내집단, 외집단 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4. 겸손 행동은 솔직한 행동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것이다.

방 법

본 실험은 집단수행에 관한 시나리오 상에서 성공과 실패의 원인에 대한 표현 행동이 겸손한 행동이었던지와 그러한 언행이 솔직한지의 여부를 피험자들에게 평가하도록 하였고, 그러한 사람을 친구로서, 집단의 일원으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또한 그러한 언행자의 인격과 예의 바름의 정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피험자는 경기도의 C 대학과 충청남도의 N 대학의 심리학 개론을 수강하고 있는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남,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나, 분석 결과 성별에 의한 차이가 없었고, 본 고에서는 여대생들의 사회 규범적 행위 양식에 대한 반응에 초점을 맞추고자 여학생들의 결과만을 보고하고자 한다.

사용된 시나리오는 TV 게임 프로그램에 출연한 우리 집단(나와 친한 친구들과)과 외집단이라 할 수 있는 '남' 집단(철수와 친구들이 승리하였을 때와 패했을 때, 각 집단 수행 결과에 대해 각 각의 원인을 공개적으로 표현할 때를 가정하여 구성하였다.

사용된 시나리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철수는 친한 친구 세 명과 함께 방송국에서 개최한 퀴즈 프로그램에 나갔다. 철수 팀은 계속 승리를 하여 최종 결승전에 나가게 되었다. 최종 결선에 나온 팀은 두 팀! 오늘 이긴다면 대망의 우승으로, 네 명 모두 다음 학기 장학금을 받게 된다.

퀴즈 게임은 시작되었고, 모두 15문제를 풀게 되어 있다. 14문제를 풀 결과 7 대 7! 이제 마지막 한 문제

로 승패를 가르게 된다. 마지막 문제가 나오고, 철수는 문제를 듣자마자 벨을 눌러 답을 하였다. 정답이었다. 철수네 팀이 승리한 것이다.

철수는 우승 소감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답하기를, “내가 실력이 탁월해서 이긴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 실험 설계는 2(우리집단, 외집단)×2(성공, 실패)×6(친구 노력, 나의 노력, 친구 능력, 나의 능력, 운, 과제 난이도)의 실험 요인 방안으로 Between-Subjects Design(N=240)을 사용하였다. 내, 외집단과 귀인 유형에 따라 24종류의 각기 다른 유형의 시나리오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각 각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시나리오 상에서 우리 집단 혹은 외집단이 승리했을 때와 패했을 때 원인에 대한 귀인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행동이 얼마나 겸손한지 그리고 그러한 행동이 솔직하게 표현했다고 생각하는 지 등을 5점 척도 상에서 평가하도록 하였다.

결 과

1. 언행의 겸손함 평가

집단수행 결과 승리했을 때 그 원인에 대한 공개적 표현 행위에 대한 겸손의 정도를 평가한 결과,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하였고($F(1, 240)=7.453, p < .01$), 귀인양상에 따른 차이도 유의미하였다($F(5, 240)=2.427, p < .05$). 그러나 집단과 귀인양식에 따른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외집단이 승리하였을 때 친구 실력과 친구 노력, 운으로 귀인 한 경우에 겸손한 행동으로, 나의 노력이나, 나의 실력, 과제가

쉬웠다고 귀인한 경우는 겸손하지 않은 행동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집단의 승리에 대해서는 ‘친구 노력, 친구 실력 때문에, 과제가 쉬워서, 운이 좋아서’ 라고 귀인한 경우 겸손한 행동으로, 나의 노력이나, 나의 실력으로 귀인한 경우는 겸손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내, 외집단 모두 승리했을 때 동료의 실력이나 노력, 운이나 과제 난이도로 귀인할 때 겸손한 언행으로 평가했다. 따라서, 성공을 외적으로 귀인하는 것이 더 겸손하게 평가될 것이라는 가설 1과 내, 외집단 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3은 지지되었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패배하였을 경우 외집단에서는 패배의 원인을 나의 노력, 나의 실력으로 귀인한 경우에는 겸손한 행동으로, 친구 노력, 친구 실력, 과제 난이도, 운으로 귀인한 경우에는 겸손하지 않은 행동으로 보았으며, 내집단에 대해서는 패배의 원인을 나의 노력, 나의 실력, 과제 난이도 및 운으로 귀인한 경우는 겸손한 행동으로, 그리고 친구 노력, 친구 실력으로 귀인한 경우는 겸손하지 않은 행동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집단의 경우 외집단과는 달리 과제 난이도와 운으로 귀인했을 때 나의 노력과 실력과 더불어 겸손한 언행으로 평가해 내, 외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실패를 내적으로 귀인하는 것이 더 겸손하게 평가될 것이라는 가설 2와, 가설 3은 지지되었다.

2. 언행의 솔직성 평가

승리의 원인에 대한 귀인은 겸손의 정도를 평가한 것과 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집단의 경우 나의 노력, 나의 실력으로 귀인했을 때 가장 솔직한 표현으로, 친구 노력, 친구 실

표 1. 귀인소재의 표현에 대한 겸손 평가(승리조건)

귀인소재 집단	운 (평균, SD)	과제난이도	나의실력	친구실력	나의노력	친구노력
내집단	3.40(.97)	3.10(.88)	1.80(.63)	3.90(.74)	2.20(.79)	3.90(.57)
외집단	3.60(.70)	2.90(.88)	1.80(.79)	3.90(.32)	2.40(.70)	3.80(.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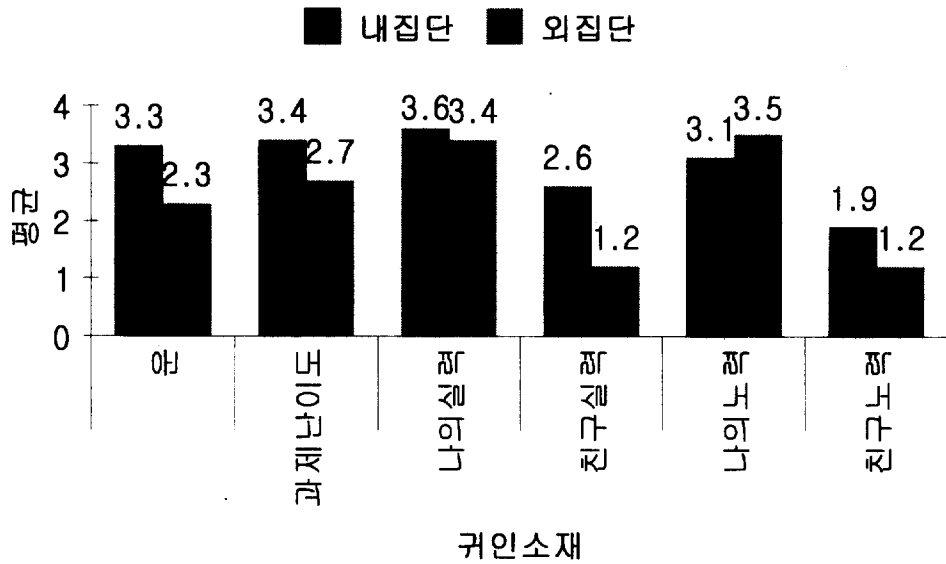


그림 1. 내, 외집단 수행의 패배 원인의 귀인 표현 유형에 대한 겸손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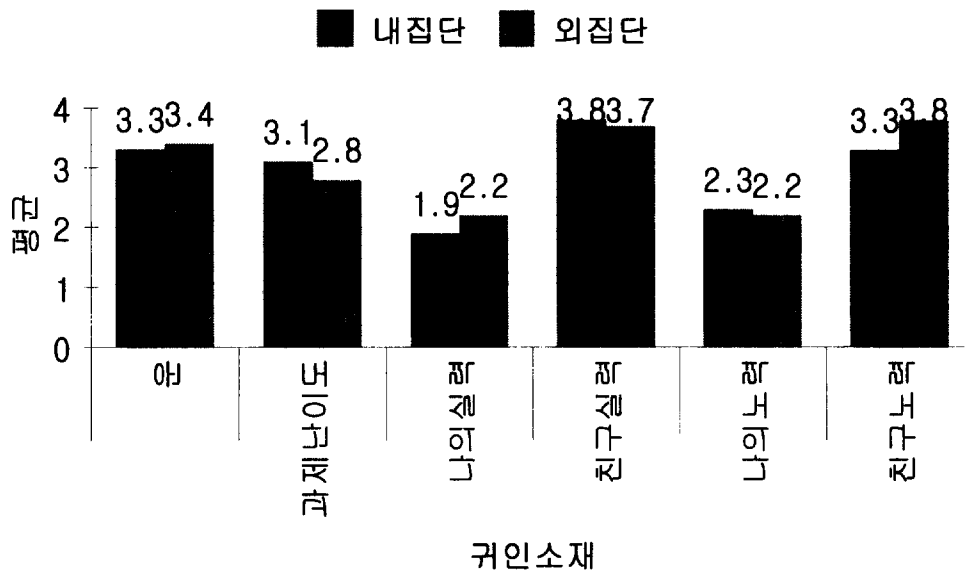


그림 2. 내, 외집단 수행의 승리 원인의 귀인 표현 유형에 대한 솔직성 평가

력, 과제 난이도, 운으로 귀인한 경우는 솔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내집단에 대해서는 나의 노력, 과제 난이도, 친구 노력, 친구 실력, 나의 실력으로 귀인한 경우는 솔직한 것으로, 운으로 귀인한 경우는 솔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집단에 따른 차이와 귀인 소재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내집단의 경우, 승리했을 때 운으로 귀인했을 경우에는 겸손하지만 솔직하지 않은 것으로, 나의 실력으로 귀인했을 경우에는 겸손하지 않지만 솔직한 것으로, 나의 노력으로 귀인했을 때에는 겸손하진 않지만 솔직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반응 패턴은 외집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수행의 결과가 성공이나 승리로 이어졌을 때 귀인 당사자의 승리나 성공의 원인이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에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규범화된 행위 양식이 아님을 반응자, 귀인자 모두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내집단의 경우 친구 노력이나 친구 실력 때문에 승리했다고 했을 때 겸손하다고 평가받았으며 또한 그러한 언행이 솔직하다는 평가도 받은 것으로 보아 내집단의 결속과 가치에 대한 암시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외집단의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가설 4의 경향편향을 보이는 행동은 솔직하게 표현한 행동이 아닐 것이라는 것은 지지되었다.

패배했을 때 외집단에서는 친구 실력으로 귀인한 경우 가장 솔직한 표현으로 평가되었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집단에 대해서는 나의 노력때문이라고 했을 때 가장 솔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솔직성에 대한 성공과 실패, 내외집단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고($F(1, 240)=6.840, p < .01$), 성패와 귀인소재 간에도 상호

작용 효과가 있었다($F(5, 240)=4.104, p < .001$). 외집단의 경우 승리했을 때보다 패배했을 때 친구의 노력이나 실력 때문으로 귀인하는 것에 대해 더 솔직한 것으로, 내집단의 경우 패배했을 때 친구 실력때문이라고 귀인하는 것이 승리했을 때보다 덜 솔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3. 대인 관계 맥락 속에서의 평가

귀인 언행자를 친구로서, 집단의 일원으로서, 사회구성원으로서 평가했을 때 어떠한 사람을 가장 선호하는지를 피험자들에게 평가하도록 했다. 먼저, 친구로서 가장 바람직한 사람은 집단에 따라, 성패, 그리고 귀인 유형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내집단 성원의 귀인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승리했을 때에는 내집단의 경우 친구 실력, 운과 친구 노력, 나의 노력, 과제 난이도 때문으로 귀인하는 사람을 친구로서 적합한 사람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집단의 귀인 언행자에 대한 평가에서는 친구 실력과 친구 노력, 과제 난이도, 운으로 말하는 사람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배했을 때에는 겸손한 사람 즉 패배의 원인을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 때문으로 귀인하는 사람을 친구로서 적합한 사람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집단의 경우, 친구 실력과 친구 노력으로 귀인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귀인 언행자에 대해 친구로서 바람직한 사람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 내집단에 대한 편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집단 성원으로서의 바람직성에 대한 평가는 외집단의 경우, 승리했을 때 친구 실력과 친구 노력, 운과 과제 난이도 때문으로 귀인하는 사람을

표 2. 귀인소재 표현에 대한 솔직성 평가(패배조건)

귀인소재 집단	운 (평균, SD)	과제난이도	나의실력	친구실력	나의노력	친구노력
내집단	2.70(.95)	2.90(.99)	2.60(.97)	2.70(1.06)	2.00(.47)	2.40(.70)
외집단	2.90(.99)	2.70(1.06)	2.90(1.1)	3.50(1.08)	2.70(.95)	2.80(1.4)

바람직한 것으로, 패했을 때에는 나의 실력이나 나의 노력 때문으로 귀인하는 즉 겸손한 사람을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집단에서도 나타나는 바, 승리했을 경우에는 친구 실력, 나의 노력, 친구 노력, 과제 난이도, 운 때문으로 귀인한 사람을 바람직한 성원으로, 패배했을 때에는 친구 노력 때문으로 귀인한 사람으로 제외하고는 모두 바람직한 성원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승리했을 때 집단 고양 편향을 보이는 사람을, 패배했을 때에는 패배의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을 내, 외집단 모두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함은 성공과 실패, 내집단과 외집단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내집단과 외집단 모두 승리했을 때 겸손한 사람을 바람직한 구성원으로, 패배했을 경우에도 내집단과 외집단 모두 겸손한 사람, 즉 패배의 원인을 자신의 노력이나 실력 때문으로 귀인하는 사람을 사회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하다고 평가되었다. 그러나 내집단의 경우 승리나 패배 모두 운이나 과제 난이도

로 귀인하는 사람을 외집단과는 달리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개인의 성격측면에 대한 평가

집단 수행의 승리와 패배에 대한 귀인 소재에 따른 언행에 대한 개인적 측면에서의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측정하였다. 첫 번째는 인격의 성숙 여부에 관한 것이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행의 결과가 승리조건이었을 때 외집단의 경우 친구 실력과 노력으로 귀인할 때 가장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평가하였다. 내집단인 경우에는 친구 실력으로 귀인했을 때 가장 성숙한 사람으로 지각되었다. 인격의 성숙 정도에 대한 평가는 집단간, 성패간, 귀인 소재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성패와 집단 간, 성패와 귀인 소재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패배했을 때에는 내, 외집단 모두 실패의 원인을 자신의 내적 차원에 귀인하는 사람을 가장 성숙한 사람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내집단의 경우 외집단과는 달리 운으로 귀인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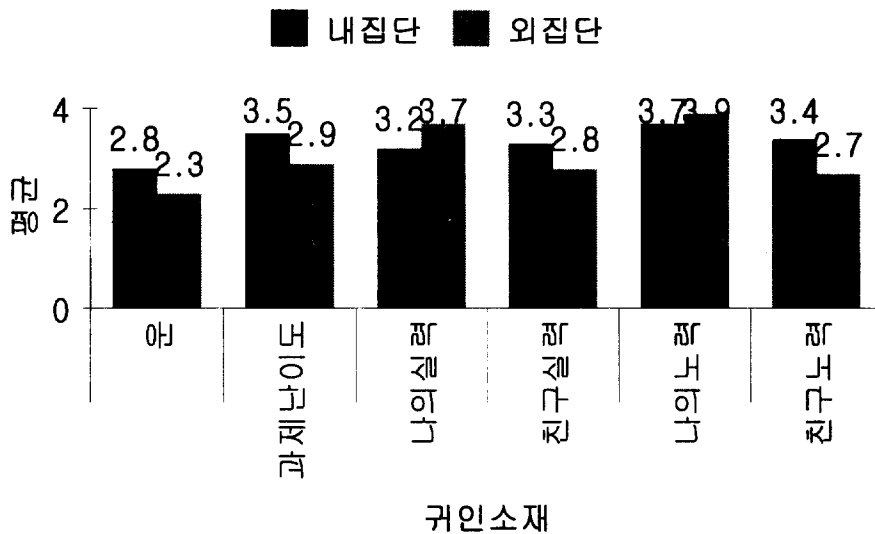


그림 3. 내, 외집단 수행의 승리 원인의 귀인 표현 유형에 대한 인격의 성숙 정도 평가

경우에도 성숙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두 번째로 예의가 바른가에 대한 평가에서는, 외집단이 승리했을 때 운과 친구 실력 및 노력으로 귀인하는 언행을 가장 예의가 바른 것으로, 패배했을 때에는 나의 실력이나 노력으로 귀인하는 언행을 가장 예의 바른 것으로 평가하였다. 내집단이 승리했을 때에는 친구 실력, 친구 노력, 운, 과제 난이도의 순으로 예의가 바르다고 평가되었고, 패배했을 때에는 나의 실력, 과제 난이도, 나의 노력 순으로 예의가 바른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공과 실패, 귀인 소재에 따른 차이와, 승패와 집단간, 승패와 귀인 소재간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사회적 규범차원에서의 겸손한 언행이 정말로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를 위의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승리하였을 때 외집단에서는 나의 노력, 나의 실력으로 귀인하는 것을 겸손하지 못한 행동이었으나 가장 솔직한 표현으로 나타났고, 친구 실력, 친구 노력, 운이 가장 겸손한 행동이었으나 솔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집단에 대해서도 나의 노력, 나의 실력을 겸손하지 못한 행동이었으나 솔직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았으며, 그 외 친구 노력, 친구실력, 문제 난이도로 귀인한 행동도 솔직한 것으로 보아, 내집단의 행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타났다.

패배하였을 때의 귀인유형에 대한 솔직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솔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외집단의 경우 친구 실력과 노력 탓으로 귀인을 한 것을 가장 겸손하지 않은 행동으로 보았으나 이 경우가 가장 솔직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나의 실력으로 귀인했던 것이 가장 겸손한 것으로 여겨졌으나 친구 실력 때문

이라고 한 것이 가장 솔직한 것으로도 평가되었다. 내집단의 경우는 친구 실력이나 노력 때문으로 귀인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즉,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사회적 규범의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대체적으로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은 행동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성공과 실패를 운 때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겸손한가에 대해서 외집단-내집단 간의 차이가 있었고(우리집단 일수록 겸손, $F(1, 240)=7.45, p < .01$), 패했을 때(운이 없어서 졌다) 보다는 승리했을 때(운 때문에 이겼다) 더욱 겸손한 것으로 나타났다($F(1, 240)=15.12, p < .001$). 결과적으로 보면, 겸손한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실제로는 솔직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겸손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 행동들이 솔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언행자에 대한 대인 관계적, 개인적 측면에서의 평가는 겸손한 사람일수록 친구로서, 집단의 성원으로로서,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로서 바람직한 사람으로 평가되었고, 또한 그러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되었고 예의가 바른 사람으로 평가되었다. 집단 수행에 대한 집단 성원의 가치를 부여하는 즉 성공을 집단 성원으로 노력이나 실력의 탓으로, 실패의 경우 자신의 노력이나 실력 부족 때문으로 귀인할 때 대인 관계적 측면과 개인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논 의

겸손이나 겸양이라는 말은 사실과 다르게 자신을 낮추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겸손 언행이 사실과 다

표 3. 귀인소재 표현에 대한 예의 바람의 평가(패배조건)

귀인소재 집단	운 (평균, SD)	과제난이도	나의실력	친구실력	나의노력	친구노력
내집단	2.90(.74)	3.40(.70)	3.50(1.27)	2.60(1.43)	3.20(.92)	2.10(.57)
외집단	2.40(.52)	3.10(.88)	3.50(.71)	1.90(.99)	3.30(.95)	1.60(.52)

르다는 것은 언행자와 그것을 관찰하는 사람 모두 공유하고 있는 사회 규범이다. 따라서, 타인(집단성원)이 잘해서 그렇다고 하거나 운이나 과제가 쉬워서 그렇다는 타인(집단)고양 편향 현상이나 외적 귀인은 “의례적인” 말이 된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나라에서는 겸손을 미덕으로 여기는 사회 문화적 규범이 있기 때문이다(최상진, 김시엽, 김은미, 김기범, 2000).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자신이 속한 집단의 성공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집단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귀인한 것이 겸손한 행동으로 평가되었으나, 실제로는 솔직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자신이 속한 집단의 성공적인 결과가 나의 노력이나, 집단의 노력으로 귀인한 경우가 겸손하지 않은 행동이나 솔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자신이 속한 집단이 패배하였을 경우에는 나의 노력이나 나의 능력이 부족하여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귀인한 것이 겸손한 행동으로 평가되었으나, 이는 솔직하지 않은 행동으로 보았으며, 집단의 노력이나 집단의 능력의 부족으로 귀인한 것이 겸손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을 지라도 오히려 솔직하게 표현한 행동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겸손 언행자는 친구로서, 집단 성원으로로서, 사회 구성원으로로서 바람직한 사람으로 지각되고, 개인적으로도 인격의 성숙성과 예의 바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이영주, 1989). 이러한 결과는 한국 문화권에서 사회적으로 규범화된 행동이 심리적 보상 체계와 기능성을 함유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규범이나 가치는 개인의 가치체계나 규범체계로 내면화되며, 이러한 것은 행동을 통해 표현하게 된다. 뒷사람에 대한 예와 공경을 중요하게 여겼던 우리 문화에서는 이러한 가치가 겸손행동으로 내면화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겸양편향과 집단 고양 편향 현상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겸손으로 인식되게 만드는 타인(집단)고양 편향은 명시적으로는 타인(집단)고양 편향일지라도 암묵적으로는 자이고양 편향인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겸양편향은 개인주의 문화권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일종의 자기증진의 한 책략이라 할 수도 있다(Cialdini & De Nicholas, 1988;

Markus & Kitayama, 1991; Taylor 등 1994). 그러나 집단주의 문화권의 구성원에게 있어서 ‘이러한 타인고양편향은 심리적으로 진실한 자기 지각을 반영하거나 또는 이에 수반되는 것이다’(Markus, & Kitayama, 1991). 즉 개인주의자들에게는 능력의 탁월성이 자존심의 근거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이고양 행동이 유발되지만, 집단주의자들에게는 사회관계속에서의 조화의 유지가 자존심의 근거이기 때문에 겸양을 통한 자기조절과 억제행동이 자연스럽게 유발된다(Markus & Kitayama, 1991)고 볼 수 있다.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겸손행동을 한다는 것은, 그 행동의 이면에 문화적인 가치체계에 영향을 받아 결국은 자신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동기와 욕구를 갖고 있으며, 의례적으로 겸손행동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한국의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규범화된 가치와 언행을 내면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성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자신의 성공과 능력을 걸고 드러내는 행동양식보다는 자신의 노력이나 운, 과제의 난이도 등에 자신의 성공 원인을 귀인할 때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내면화하고 있으며, 그러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성숙되고 예의가 바른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사람을 친구로, 집단의 한 성원으로,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 바람직한 사람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집단의 가치와 집단의 화합을 우선시하는 집합주의적 성격 특성이 여성들에게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최상진 등, 2000 참조).

지금까지, 정관계로 형성될 수 있는 우리집단과 그렇지 않은 타집단에서의 겸양편향 현상을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점과 실험실에서 실시된 연구가 아니라는 점이 겸손 언행의 심층적인 분석을 제한하는 점으로 고려되고, 겸손 언행의 형식성 및 심리적 기능성을 추후에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겸손의 행위 양식과 의미는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오늘날에는 집단주의적 가치관이나 기준들이 많이 변모해 가고 있고, 젊은 연령에서는 개인주의적 가치관과 집단주의적 가치관이 혼

제한 것으로 본 바(나은영, 차재호, 1999), 연령이나 세대간에 겸손 언행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혜숙 (1995). 귀인상황의 공개성과 (집단)자아존중이 자기고양 귀인과 집단고양 귀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9(1), 45-64.
- 나은영, 차재호 (1999). 1970년대와 1990년대간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와 세대차 증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16-60.
- 류윤상, 최현주, 정진경(1994). 성패귀인의 성차에 대한 한 연구. *한국심리학회 94년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349-356)
- 이영주 (1989). 자기-노출 방식이 인상형성과 호감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상진, 김기범 (1999). 한국인의 Self의 특성: 서구의 self 개념과 대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275-292.
- 최상진, 김시엽, 김은미, 김기범 (2000). 우리성·정관계에서 나타나는 집단편향귀인 현상에 대한 문화심리적 분석: 겸손행위의 심층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 한규석 (1995). *사회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 Battle, E. S., & Rotter, J. B. (1963). Children's feeling of personal control as related to social class and ethnic grou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 482-490.
- Bond, M. H., Hewstone, M., Wan, K. C., & Chui, C. K. (1985). Group-serving attributions across intergroup contexts: Cultural differences in the explanation of sex-typed behavior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5, 435-451.
- Chandler, T. A., Sharma, D. D., Wolf, F. M., & Planchard, S. K. (1981). Multiattribitional causality: A five cross-national samples stud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2, 207-221.
- Choi, I., Nisbett, R. E., & Norenzayan, R. (1999). Casual attribution across cultures: Variation and universality. *Psychological Bulletin*, 125(1), 47-63.
- Franzoi, S. L. (1996). *Social psychology*. Madison: Brown & Benchmark.
- Frieze, I. H. (1975). Women's expectations for and causal attribution of success and failure. In M. T. S. Mednick, S. S. Tangri, & L. W. Hoffman (Eds.), *Women and achievement: Social and motivational analyses*. Washington, D. C.: Hemisphere.
- Fry, P. S., & Ghosh, R. (1980). Attributions of success and failure: Comparisons of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Asian and Caucasian childre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1, 343-363.
- Hewstone, M., & Jaspars, J. M. F. (1982). Explanation for racial Discrimination: the effect of group discussion on intergroup attribution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 1-16.
- Kashima, Y., & Triandis, H. C. (1986). The self-serving bias in attributions as a coping strategy: A cross-cultural stud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7, 83-97.
- Kelley, H. H. (1967). Attribution theory in social psychology. In D. Levine (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pp. 192-238).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Krull, D. S., Loy, M. H-M., Lin, J., & Wang, C-F (1999). The fundamental attribution error: Correspondence bias in individualist and collectivist cultural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5, 1208-1219.
- Lau, R. R. & Russel, D. (1980). Attributions in sports pag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29-38.
- Leong, C. H., & Ward, C. (1999). The effects of enhancing and effacing attributions for success and failure on Chinese person perceptions in self and group referent conditions. In T. Sugiman, M. Karasawa, J. H. Liu, & C. Ward (Eds.), *Progress in Asian Social Psychology. Vol II* (pp.75-85).

- Seoul: Kyoyook-Kwahak-Sa Publishing Company.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atsumoto, D. (1996). *Culture and psychology*. Albany: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Miller, D. T., & Schlenker, B. R. (1985). Egotism in group members: Public and private attributions for group performance.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8, 85-89.
- Nisbett, R., & Ross, L. (1980). *Human inference: Strategies and shortcoming of social judgmen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Semin, G., & Zwier, S. (1980). Social cognition. In J. W. Berry, M. H. Segall, & C. Kagitcibasi (Eds.).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 III. (pp.51-75). Boston: Allyn and Bacon.
- Shikanai, K. (1978). Effects of self-esteem on attribution of success-failure. *Japanes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8, 47-55.
- Taylor, D. M., & Doria, J. R. (1981). Self-serving and group-serving bias in attribution.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13, 201-211.
- Wan, K. C. & Bond, M. H. (1982). Chinese attributions for success and failure under public and anonymous conditions of rating. *Acta Psychologica Taiwanica*, 24, 23-31.
- Watkins, D., & Regmi, M. (1990). Self-serving bias: A Nepalese investigation.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0, 555-566.
- Woloshin, R. J., Sherman, S. J., & Till, A. (1973). Effects of cooperation and competition on responsibility attribution after success and failur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9, 220-235.
- Yamaguchi, H. (1988). Effects of actor's and observer's roles on causal attribution by Japanese subjects for success and failure in comparative situations. *Psychological Reports*, 63, 619-626.
- Yoshida, T., Kojo, K., & Kaku, H. (1982).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elf-presentation in children. *Japanes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30, 30-37.
- Zuckerman, M. (1979). Attribution of success and failure revisited, or the motivational bias is alive and well in attribution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47, 245-287.

College Women's View on Socially Normative Behavior: An Analysis of Group-Serving Bias and Modesty

Sang-Chin Choi · Si-Up Kim* · Eun-Mi Kim · Kibum Kim

Chung-Ang University

Kyonggi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focused on college women's view on socially normative behavior in Korean culture. In western cultures, people tends to attribute their success to their internal attributional dimension(i.e., effort and ability) whereas they are more likely to ascribe their failure to external dimension(i.e., luck and task difficulty). This phenomenon is defined as 'self-serving bias'. However, in Asian cultures, esp. Korean cultures, most people would attribute their success to external dimension of attribution such as parent's support, luck, task difficulty and their failure to internal dimension such as ability and effort. These phenomenon, seemingly is a contrast to western cultures. But, in Korean culture, these behaviors are result in socially internalized norms and values. Consequently, these behaviors are evaluated as not honest and ritualized behavior. This study was conducted by 2(ingroup/outgroup) by 2(victory/defeat) by 6(attributional dimension; luck, task difficulty, my effort, friend's effort, my ability, friend's ability) factorial design. The results revealed that more humble person was not honest even though he or she was evaluated more preferred person as his or her friend, group member and components of society. Additionally, he or she was evaluated as matured one and one with propriety. What humble person was to attribute his or her success to external dimension and to show group-enhancing bias.